ISSN 1226-9050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2015년 9월 제56호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

발행인: 홍성태 편집인: 김재원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 전화: 02)794-4146 전송: 02)794-3146 www.kamje.or.kr

회원현황 및 회원가입 안내

본 협의회의 단체회원은 2015년 9월 현재 252종 학술지(의학 학술지 196, 의과대학 학술지 11, 기타 분야 학술지 45)이며, 개인회원은 43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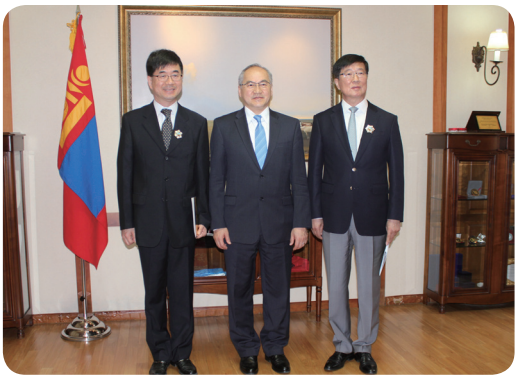
특별회원으로는 (주)갑우문화사, 광문출판사, (주)메드랑(의학문화사), 메드소프트, 아이비기획, 아카데미아, 엠투커뮤니티, 우리의학사, 인권앤파트너스, 진기획, 최신의학사, 크림슨인터렉티브코리아(주), Editage, Google Inc., (주)InfoLumi, ML communications (중앙문화사), NHN(주), XMLink Co., Ltd., 총 1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홈페이지(kamje.or.kr)의 회원가입 안내를 참고하거나 사무국(Tel: 02-794-4146, Fax: 02-794-3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회 논문작성워크숍 개최

본 협의회는 2015년 8월 29일(토) 오전 9시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임상 1강의실에서 제5회 논문작성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Ten keeps in writing medical articles', 'Writing English Medical Papers: Errors and Recommended Expressions', '재료 및 방법, 결과 다듬기', '표지, 제목, 서론 및 초록 다듬기', '논문작성과 문헌검색, 참고문헌 작성', '의학논문 작성을 위한 R 통계 ', 'Table, Figure 정리', '투고된 논문의 표절 검사', '저자로서 편집자 및 심사자와 소통하기'라는 주제 아래 총 9개 강의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학술지 편집인과 강사, 전공의 등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 27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몽골 최고상 '북극성 훈장' 수상 안내



의편협 기획평가위원회 간사인 양희진 교수(사진 좌측)가 지난 6월 5일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몽골국가 최고상인 북극성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훈장은 사단법인 보라매 후원회가 2011년부터 보건의료 교류 지원사업인 보라매 프로젝트를 시행, 몽골의 의료수준 향상과 보건의료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그동안 73명의 몽골 의료인이 보라매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연수교육을 받았습니다.

몽골의 북극성 훈장은 몽골 대통령에 의해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몽골정부 최고 훈장으로 러시아 푸틴대통령, 미국 오바마대통령을 비롯하여 고건 총리,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등이 받은 바 있습니다.

특별기고*

회원 학술지의 톰슨사 인용지수의 약진을 자축하며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회장 **홍 성 태**

톰슨로이터스는 지난 6월 19일 학술지인용색인(Journal Citation Reports, JCR) 2014년 데이터를 발표하였다. 총인용 등 여러 지수를 발표하였지만 학술지인용지수(Journal Impact Factor)가 역시 관심의 대상이다. 이 학술지인용지수는 2012-2013년도에 해당 학술지가 출판한 논문이 2014년도 톰슨사 등재 학술지에서 얼마나 인용되었는가를 평균적으로 산술하는 값에 해당한다. 이 지수는 원래 도서관에서 구매 대상 학술지 선정에 참고하도록 개발된 것인데 이를 능가하는 다른 지수가 없다보니 이 지수로 학술지의 등급과 상품성을 정하고 심지어 연구자의 연구능력도 계량하게 되었다. 학술지의 등급과 중요도에서는 학술지의 본래 기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연구자의 연구능력을 인용지수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용지수가 높은 학술지에 발표되었어도 실제 인용이 얼마나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4년도 JCR 인용지수 산정에 국내 발행 학술지는 모두 102종이 등재되어 2013년도 91종에 비해 11종이 추가되었다. 이중 공업화학 분야의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의 인용지수가 3.512로 가장 높았다. 이 학술지는 국내 학회가 발행하지만 출판사는 Elsevier Science Inc.이다. 참고로 국가별 자료를 보면 미국 2,894종, 영국 1,763종, 일본 234종, 중국 173종, 러시아 148종을 기록하였고 우리나라도 등재 학술지 종수로 상위권 국가에 속한다. 열악한 국내 학술지의 편집 지원 체계나 출판업계를 감안하면 엄청난 성과이다.

톰슨사 JCR에 등재된 의편협 회원 학술지가 2015년도에 34종인데 2014년도 인용지수는 30종만 발표되었다. 3종은 아직 인용지수 미산정 기간 중이고 대한의사학회지는 A&HCI에 등재되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 중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발행하는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의 3.446이 최고이고 대한암학회가 발행하는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가 2위로 3.318을 기록하였다.

그 다음 2점대(2.494-2.296)에 3종, 1점대(1.810-1.000)에 19종, 1점 미만(0.852-0.380)에 6종이 분포하고 있어 대다수가 1점대에 있고 중앙값이 1.287이다. 2013년도와 비교하면 13종은 0.1 이상 상승, 7종은 유지(0.1 이내 소폭 변동), 6종은 0.1 이상 하락하였다. 위 상위 2종 외에 Annals of Dermatology,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Biomolecules & Therapeutics, Asian Nursing Research,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 등이 상승폭이 컸다. 대체로 연간 출판하는 논문의 수가 많은 큰 학술지들의 변동이 적고 연간 100편 이하의 중소 규모 학술지의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유형을 보였다(표 1).

이번 자료를 통해 의편협 회원 학술지의 국제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자평한다. 전반적으로 인용지수가 아직 낮기는 하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1.0을 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분야별로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에서 인용지수 1.0 이상이면 글로벌 학술지 평가에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이 중 2종을 제외한 학술지를 국내에서 출판하는데 국내 출판비가 국제 시세의 약 1/4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편집하고 출판하는 학술지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사실이 특히 고무적이다. 이제 학술지의 국내 온라인출판이 학술지의 가시성을 높이고 Open Access 출판으로 국제적인 인용을 받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의편협 창립 20년을 앞두고 회원들이 함께 국제규격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임을 자축하고 싶다. 편집 뿐 아니라 국내 출판계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증거이기도 하다. 더 많은 학술지가 국내 학술지 문헌을 인용하도록 독려하고 연구자의 평가에서 국내 학술지 논문을 평가절하하는 정책도 수정되어야 한다. 이제는 더욱 좋은 연구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그 논문을 외국 저명 학술지가 아니라 국내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 다음 과제로 남았다. 메르스 관련 논문을 모두 국내 학술지에 발표하자는 제안을 해본다.

* 대한의학회 e-newsletter 2015년 7월 No. 63호에 게재된 원고를 허락을 얻고 전재하였습니다.

표 1. 톰슨로이터스 JCR 등재 의편협 회원 학술지 인용지수 현황

JCR(SCI & SCIE) 등재 학술지명	Impact Factor		Total Cites	
	2014	2013	2014	2013
Exp Mol Med	3.446	2.462	2212	1931
Cancer Res Treat	3.318	2.975	714	584
J Gynecol Oncol	2.494	1.600	511	390
Allergy Asthma Immunol Res	2.425	3.084	563	389
J Neurogastroenterol Motil	2.296	2.698	566	422
Gut Liver	1.810	1.494	854	572
Biomol Ther	1.727	0.841	370	211
J Clin Neurol	1.700	1.807	537	472
J Breast Cancer	1.576	1.317	396	261
Korean J Radiol	1.571	1.807	1369	1177
Nutr Res Pract	1.443	1.129	613	424
Korean J Intern Med	1.426	-	748	-
Ann Lab Med	1.417	1.481	224	131
Ann Dermatol	1.393	0.954	636	533
Korean J Physiol Pharmacol	1.378	1.262	542	383
Yonsei Med J	1.287	1.263	2566	2257
Psychiat Invest	1.280	1.149	510	397
J Korean Med Sci	1.266	1.253	3710	3431
Korean J Orthod	1.173	0.370	191	111
J Vet Sci	1.164	1.142	847	805
Korean J Parasitol	1.151	0.965	1225	952
J Periodont Implant Sci	1.145	-	224	-
Int Neurourol J	1.061	-	166	-
Asian Nurs Res	1.000	0.418	138	71
Clin Exp Otorhinolaryngol	0.852	0.835	318	247
Korean Circ J	0.753	-	544	-
J Korean Surg Soc (Ann Surg Treat Res)	0.730	0.616	384	282
J Adv Prosthodont	0.640	0.631	190	111
J Korean Neurosurg Soc	0.636	0.522	1085	904
J Korean Acad Nurs	0.380	0.359	359	363
Korean J Med History	A&HCI			

* 인용지수 미산정 기간 중인 등재 결정 학술지: Mycobiology, Journal of Stroke, Clinical Psychopharmacology and Neuroscience

APAME 참관기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부회장 **권 오 훈**

지난 8월 말 필리핀 마닐라에 다녀왔습니다. 매년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 회의 겸 학술대회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출발 전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난 번 MERS 사태로 정신이 없을 때 Forum 2015로부터 패널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마침 어깨 통증이 심하기도 하였으려니와 필리핀 사정을 잘 아는 어떤 기자출신 지인으로부터 필리핀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들어 둔 참이었습니다. 홍성태 회장께서 제출한 초록이 거절을 당해 학교의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되자 이제는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록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어찌나 많은지 APAME에 등록한 이후에도 WPRIM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APAME, Forum 2015 측에 따로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마닐라 공항 도착하는 날 깜깜한 밤 폭우 속을 헤치고 겨우 도착한 호텔 입구에는 큼직한 개 두 마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필리핀 방문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에는 WHO WPRO 대회의실에서 WPRIM-APAME joint meeting이 있었습니다. WPRIM 회의에는 WPRO

및 SEARO 지역 총 20개국에서 온 대표와 WHO 2개 지역 사무소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중국 IMICAMS의 Fang An은 WPRIM은 현재 12개국의 의학논문 55만여 건을 색인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대부분의 자료를 각국의 주요 데이터베이스나 PubMed 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편협은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못한 학술지 논문들에 대한 처리 방침을 요청하였고 향후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WPRIM Regional Journal Selection Committee에서는 각국의 National Journal Selection Committee에서 추천한 22개의 신규 학술지를 WPRIM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서정욱 WPRIM 학술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WPRIM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열린 APAME 연차 회의에서는 필자가 위원장을 담당한 APAMED Central 특별위원회 보고를 통하여 WHO WPRO 도서관의 인턴십 프로그램, 의편협/XMLink의 금전적 기술적 지원, 숙명여자대학교의 인적자원으로 이루어진 밀접한 협력관계가 APAMED Central의 핵심 요소임을 피력하였으며, WHO 인턴의 역할, 새로 추가된 4종의 학술지, 학술지 선정 기준, WorldWideScience.org에 색인된 이야기, 그리고 APAMED Central 접속 통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WHO SEARO 지역 학술지들이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WPRO 수준의 학술지 선정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날 계속된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은 PMC에도 full text XML 파일을 보내면서 승승장구하던 학술지 하나가 인도 업체와의 연락이 끊어지면서 PMC 등재 자체도 중단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려 준 어느 말레이지아 학술지 편집장은 IT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자신의 친척의 팔을 비틀어서 겨우 겨우 공부시켜서 JATS XML을 PMC에 보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옆에 같이 있던 인도 대표는 인도에 있는 업체들이 자신들이 관계하고 있는 학술지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푸념을 했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APAME 2015 Convention이 Sofitel Philippine Plaza Manila에서 열렸고 같은 기간 Philippine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PICC)에서 Forum 2015가 같이 열렸습니다. 그 전날인 24일 저녁 PICC에서 열린 Forum 2015 Opening Ceremony에 Aquino 필리핀 대통령이 초청 연설을 할 정도로 국가적인 지원을 받은 큰 행사인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26일 수요일 오후 MAHLAP (필리핀 의학사서협회)과 XMLink의 합동 XML Workshop에 5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이춘실 교수의 지도 아래 JATS, DOI, ORCID 및 FUNDREF 관련 강의 및 1대1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여러 편집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무에 대한 폭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지난 5월 MAHLAP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하였을 때 이루어진 의편협/XMLink와의 교류를 통하여 다져진 우애 깊은 협력의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시간 PICC에서 열린 Global Forum-APAME Session에서는 APAME 회장인 Jose Lapena가 마닐라 선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순서가 있었고 이어서 BMJ Open 편집장인 Dr Trish Groves가 주관하는 세션에서 필자가 APAMED Central과 의편협의 역할에 관한 짧은 발표를 하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필자의 발표와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는 온몸이 화끈거리는 영원 같은 시간을 보낸 후 깨달은 것이 있다면 좀 더 뻔뻔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조승열 교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인해 주저 앉지 않고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식 일정 이외에도 의편협/XMLink는 WHO WPRO의 초청으로 WPRO 도서관 및 전시실, 새로 단장한 대회의실 등을 방문하였으며 신영수 처장님과의 대화 및 맛있는 저녁 초대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신영수 처장님과 이번 여행을 특별히 함께 해 주신 조승열 교수님과의 친분에 의하여 더욱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WPRO 도서관 Marie Villemin 집으로의 저녁 초대는 WPRO 주요 인사와 의편협 임원단 사이의 격의 없는 대화를 이끌어 내었으며 그 동안 쌓아 온 친밀한 유대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ERS로 복잡했던 국내 사정 및 태풍 등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여행이었지만 여정 내내 따듯한 만남과 넘치는 대접으로 인하여 진정한 국제교류가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습니다.

WPRIM APAME 회의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국제협력위원장 **서 정 욱**

아시아 태평양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APAME) 회원국 대표자 회의가 8월 24일 WHO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저개발국가의 보건의료 학술정보에 대한 마닐라 선언 발표: WHO 서태평양지역 의학 인덱스(WPRIM) 회의 / 아시아 태평양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APAME)

MANILA DECLARATION ON THE AVAILABILITY AND USE OF HEALTH RESEARCH INFORMATION IN AND FOR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Meeting of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WPRIM) / APAME2015 Convention

저개발국가에서 발표하는 학술 논문의 활용과 색인을 촉구하는 마닐라 선언이 발표되었다. 선진국 중심의 학술정보 발표와 유통만으로는 저개발국가의 건강증진에 충분하지 않으며 저개발국가에서 일어나는 질병정보가 선진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저개발국가의 논문 발표를 촉진하고 발표되는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발표된 논문이 더 많이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APAME를 중심으로 하는 학술지 편집인의 협력과 서태평양지역의학인덱스(WPRIM)와 같은 지역 논문 색인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선언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WPR)에서 발행하는 의학 분야 학술 논문을 색인하는 서태평양지역 의학 인덱스(WPRIM) 회의와 APAME 2015년 학술대회에서 2015년 8월 26일 공개되었다.

WPRIM 회의에는 8월 24일 필리핀 마닐라의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베트남, 캄보디아, 호주, 브루나이, 몽고, 파푸아뉴기니, 피지 그리고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가 참석하였고 옵서버로 인도, 타이, 미얀마, 네팔, 부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WHO 동남아시아지역 사무소 등이 참석하여 총 20개국과 WHO의 2개 지역 사무소가 참석하였다. WPRIM 회의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현황보고와 토의가 있었다.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의 Marie Villemin과 중국 의학과학원 의학정보연구소 (IMICAMS)의 Fang An은 현황보고를 통하여 "WPRIM 데이터베이스는 2006년에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5년 8월 현재 12개국의 의학분야 논문 553,176건을 색인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성장하였다"고 하였다. 이번 학술지 선정위원회는 22개의 신규학술지를 추가 선정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토론이 있었다. 서정욱 WPRIM 학술지선정위원회 의장(APAME 수석부회장)은 "WPRIM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2016년 WPRIM 회의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품질 개선 방안으로 "학술지 선정을 위한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편집위원장, 행정 책임자의 연락처, 데이터베이스의 생산과 제출에 대한 예상 자료 그리고 메타데이터 작성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포함하는 신청 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존 학술지에 대하여는 학술지 현황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APAME 회의는 각국 대표자회의(8월 24일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와 학술대회(8월 25-26일, 마닐라 소피텔호텔)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APAME 각국 대표자회의에서는 APAMED Central 분과(분과장 권오훈 교수) 외 3개 분과(편집정책 분과, 정보기술 및 도서관 분과, 교육분과)의 분과 토론에 이어서 활동보고가 있었다. APAME는 2008년 서울에서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회장 홍성태 대한의학회 간행이사)의 주도하에 창설되었으며 한국 등 2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APAME 학술대회는 COHRED / Global Forum on Research and Innovation for Health 2015(이하 Forum 2015) 와 함께 진행되어 역대 최대 행사로 진행되었다. Forum 2015에서는 국제 보건과 저개발국가의 의학 연구에 대한 다양한 세션이 열렸다. APAME 주관으로 저개발국가에서의 학술 지식 전파 전략에 대한 세션도 열렸으며,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권오훈 부회장이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Marie Villemin, WHO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 Charles Raby, BMJ Open(영국의학저널)의 Trish Grove 편집위원장, Nature 저널출판부 Martin Delahunty 대표와 나란히 토론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국에서는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 홍성태 회장, 권오훈 부회장, 오세정 기획평가위원장, 서정욱 국제협력위원장, 이춘실 교수 등 총 28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홍성태 교수 등 3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1개의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APAME) 엠블럼

제34차 KoreaMed 등재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결과

2015년 6월 25일(목) 오후 5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제 34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가 열렸습니다. 평가회에는 KoreaMed에 미등재된 학술지 중 6종(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Natural Product Sciences, 중앙의대지, 보건행정학회지, 계명의대학술지, 한국임상약학회지)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중 5종이 평점 3.0점 이상을 획득하여 KoreaMed 등재지가 되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학술지 총평을 공개합니다.

1.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평점: 3.31)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는 기초간호학회가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로서 년 4회 발행됩니다. 금번 평가 대상은 2015년 2월호(17권 1호)로 원저 10편이 게재되었습니다.

표지 디자인은 무난한 편이나 최근 국제적인 감각에 맞게 조금 더 세련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학술지 뒷면에 불필요한 학술지 관련 URL을 표기하고 있어 재고가 필요합니다. 목차, 판권란, 투고규정 등에서 오자는 발견되지 않으나 한글제목과 영문제목이 일치하지 않는 논문들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투고규정에서 논문 종류별 작성요령과 제목 작성요령을 제외한 투고규정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었으나, 잘못된 웹사이트 URL과 중복된 문장 등이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저자명의 표기에서 제목란과 각주에 표기된 저자명이 상이한 논문이 있고(p.19, 28), 저자의 소속기관 표기에서 저자의 직위 표기 유무, 근무처 표기 방식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투고규정에서는 저자의 직위까지 표기토록 하고 있어서 투고규정의 재정비 또는 소속기관 표기 방식의 일관성 유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록에서 해설 없이 약어를 사용하였거나, 잘못된 약어를 사용한 논문이 있으며(p.1, 37, 78), 중심단어 표기에서 불필요한 약어를 사용한 논문이 있습니다(p.19).

본문의 체재는 잘 유지되고 있으며, 오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투고규정에 참고문헌의 DOI를 표기하도록 예시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참고문헌 표기방식에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고규정과 달리 단행본에서 출판도시명을 누락하였거나 issue number를 누락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며, 규정된 참고문헌의 수가 초과된 논문도 있습니다(p.87). Table을 Figure로 표기한 논문이 있으며(p.30), 표의 각주에 약어해설이 누락된 논문이 있습니다(p.40, 41). 도형그림에서 설명이 부실하거나(p.40), 모호하게 기술되어 혼란을 일으키는 논문이 있습니다(p.41). 판권란에서는 학술지 URL이 발행인(학회)란에 기술되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관리가 되고 있는 학술지로 평가되나, 투고규정의 보완과 편집인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Natural Product Sciences (평점: 3.58)

Natural Product Sciences는 한국생약학회가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로서 년 4회 발간되며, SCOPUS, CA 등 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금번 평가 대상은 2015년 3월호(21권 1호)로서 원저 12편이 게재되었습니다.

표지 도안은 세련되고 미려하나, 뒷면 목차란에서 저자명 표기에 오자가 발견됩니다. 투고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가운데 논문 종류별 작성요령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이해관계 관련 규정, 제목 작성 요령, 책임저자 및 저자 역할 관련 규정 등이 누락되었습니다. 논문제목과 저자명의 표기에서 오자는 발견되지 않으나 저자 소속기관 표기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책임저자의 우편주소가 불완전하게 기술되었습니다. 투고규정에서 초록은 structured form으로 기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모든 논문이 unstructured form으로 기술되어 있어 투고규정을 수정하거나, 투고규정에 맞게 편집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초록과 중심단어에 약어가 해설 없이 사용된 논문이 다수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체재는 잘 유지되고 있고 오자도 발견되지 않으나, 시약이나 기자재의 설명에 있어 투고규정과 달리 제조사 또는 도시명이 누락된 논문이 다수 발견됩니다. 참고문헌의 기술에서 학술지 약어명에 구두점을 찍는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불완전하게 기술된 논문도 발견됩니다(p.19, #9). 표에 가로줄이 들어가 있거나 각주에 약어해설이 누락된 논문이 다수 발견됩니다. 사진이 논문에서(p.47) 배율이 누락되었고, 크기가 작아 가독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도형그림은 선명하고 전문적으로 작성되었으나, 그림에 대한 설명이 부실하거나(특히 화학구조식의 경우 화합물의 이름만 제시하고 있는 논문이 많습니다) 약어해설이 누락된 논문이 다수 발견됩니다.

전체적으로 비교적 편집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학술지로 평가되나, 투고규정을 조금 더 보완하고 편집인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더 훌륭한 학술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보건행정학회지 (평점: 3.02)

한국보건행정학회에서 연 4회 발간하는 학술지로 심사대상이 된 2015년 3월호 (제25권 1호)에는 편집인의 글 1편, 원저 6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NLM에 납본이 되지 않아 NLM catalogue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납본이 필요하고 향후 MEDLINE, PMC 등재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독 학술지 홈페이지가 없이 학회 홈페이지에 속해 있어 접근경로가 단일화 되지 않고, 메뉴를 찾기가 어려워 독자들이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표지 도안은 세련되었고 책 등에 권호수, 해당 호의 페이지가 알아보기 좋게 인쇄되어 있어 우수했으나 학술지 홈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안타깝게도 1년간 4호 모두 의편협 납본기준으로 간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학술지중 국내 논문의 인용 빈도가 높은 것은 바람직한 점이었고 SCI 인용 지수가 0.082으로 평가 대상 학술지 중 가장 높아 주요 국제 데이터 베이스(SCI, MEDLINE, SCOPUS 등)에 등재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문헌 오류는 다소 많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투고규정에는 윤리규정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등 잘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해관계규정 및 IRB 규정, 저자의 원고제출 전 점검사항표 등이 없어 추가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영문제목과 한글제목이 일치하지 않아 서로 다른 논문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며, 일부 초록에 글자수 초과가 발견되고 중심단어가 MeSH에 부합하지 않는 점 또한 표에서 소수점 이하 자리수를 통일해야 하는 부분 등은 좀 더 세심한 관리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요약하면 여러 항목에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더 좋은 학술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4. 계명의대학술지 (평점: 3.00)

계명의대학술지(KEIMYOUNG MEDICAL JOURNAL)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로써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번 평가 대상은 2014년 12월호(33권 2호)로 원저 2편, 증례보고 11편이 게재되었습니다. 표지에 오류는 없어 보이며 디자인이 세련되어 보이나, 저널의 online homepage 주소를 추가하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뒷표지에 영어 목차를 명기해 놓았는데 학술지의 첫페이지 역시 목차인 것을 고려할 때 다른 디자인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판권란의 짜임새가 산만하고 뒤쪽에 있는데 좀 더 짜임새 있게 만든 후 앞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투고 규정에 큰 오류가 보이지 않으나 저자역할 규정이 없으며 윤리 규정이 매우 개괄적이면서 다소 허술하게 보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다고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문장을 넣기를 권고합니다. 논문 제목과 저자명 기술에서 대부분 오자는 발견되지 않으나 간혹 오류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예를 들면 64페이지에서 띄어쓰기 오류는 있었고 173페이지 교신저자 표기에서 김수정 뒤에 콤마가 빠졌습니다. 추가로 저자표시 줄간격을 조절하여 다소 짜임새 있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초록에는 약자가 있고 key word는 MeSH에 맞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은 대부분 투고 규정에 잘 맞게 되어있으나 호수(issue number)가 있고 없고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고규정에 일치하는 통일성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대부분 잘되어 있으나 몇 가지 주의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서론, 증례 (보고), 고찰, Conflict of Interest, 참고문헌으로 한글 증례보고의 본문은 제목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례보고에서는 증례부분의 기술이 처음부터 별도의 구분 없이 서술적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174페이지부터 본문이 시작되는 증례보고의 본문에서 증례부분은 주소, 병력 및 진찰소견, 과거력 등으로 소제목을 두고 단락을 구별하고 있어서 통일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Conflict of Interest 도 모두 통일해서 일관되게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에서는 가끔 통일성이 다소 없어 보이고 약자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page 123, Table 1, VA약자 없음). 사진의 경우 작고 희미하여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림 제시에 있어 A, B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그림설명에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age 122 Fig. 2). 이러한 점들을 수정한다면 전반적으로 잘 편집된 학술지로 생각됩니다.

5. 한국임상약학회지 (평점: 3.01)

Korean Journal of Clinical Pharmacy는 전반적으로 구성과 내용 모두 충실한 학술지입니다. 앞, 뒷표지 디자인이 우수하며 학술지에서 다루고자 하는 목적을 충실히 반영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학술지의 논문은 종설 1편, 원보 6편, 사례보고 1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저의 비율이 높아 학술지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되며, 투고 논문의 다양성을 위해 증례보고의 수를 늘리면 더 발전된 학회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회지의 투고 및 심사규정은 논문의 투고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연구윤리의 준수에서 '국제표준 출판윤리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에 추가하여 연구윤리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투고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각 저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권란은 학회지의 얼굴로 좀 더 짜임새 있게 학회지에 대한 소개가 개괄적으로 나오면 좋을

듯합니다. 특히 aim/scope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논문의 첫 장의 제목 밑에 접수, 수정, 승인날짜가 위에 나오면서 영문으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다소 세련되지 않게 보이므로 첫 장 아래 교신저자 설명부분에 영어로만 제시하는 좋을 듯합니다. 영문초록에 가끔 오자가 있고 영문교정이 안되었는지 가끔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문장의 길이가 아주 길어 논지 파악이 어렵기도 합니다. 영문교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key word가 MeSH가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논문이 문헌에 대한 규정을 잘 지켜 주었으나, 일부 논문의 문헌에 오류가 발견됩니다. 이런 몇 가지 요소를 수정한다면 전반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학술지로서 전체적인 구성 및 내용의 완성도가 훌륭한 학회지가 더욱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KoreaMed 학술지 2종 추가 MEDLINE 진입

KoreaMed 학술지인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Asian Nursing Research 2 종이 이번 8월에 MEDLINE에 등재되었습니다.
현재 MEDLINE에 등재된 의편협 회원 학술지는 모두 20종입니다.

-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 Asian Nursing Research
-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 Gut and Liver
-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 The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
-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 Korean Journal of Radiology
- Korean Journal of Urology
- Yonsei Medical Journal

KoreaMed format display에 "Date Entered" [DE] field 추가

KoreaMed에 레코드 입력 날짜를나타내는 "Date Entered" [DE] field가 KoreaMed format display에 포함되었습니다.

본 협의회는 2015년 12월 4일(금)~5일(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제9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